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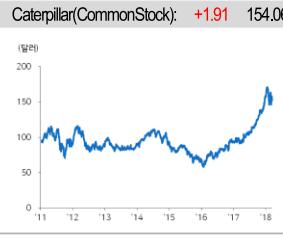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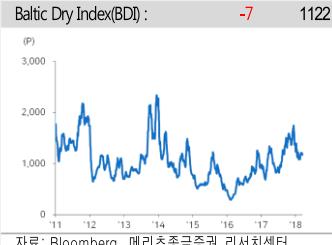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32.7	18.9	146,500	3.5	13.6	12.0	52.7	102.1	48.9	0.7	0.7	0.7	1.4
현대로보티스	6,750.8	21.3	414,500	-1.4	2.1	8.4	8.8	5.6	4.7	0.7	0.6	14.1	14.7
현대일렉트릭	820.5	6.8	80,400	-1.8	-16.2	-28.8	-29.5	7.6	6.6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713.5	8.8	173,500	-2.3	-0.6	2.4	2.7	11.0	8.1	1.2	1.1	11.7	13.9
삼성중공업	3,851.7	17.1	8,350	2.1	5.2	31.2	29.1	52.7	26.1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842.4	4.7	26,650	5.3	25.1	75.3	91.7	10.2	11.2	0.8	0.8	8.5	7.0
현대미포조선	2,130.0	13.1	106,500	0.0	3.9	14.4	35.3	23.0	16.6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45.2	6.7	3,255	0.6	-6.5	-0.6	-1.7	65.5	163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975.5	33.1	80,200	-5.1	38.5	49.9	47.4	14.2	13.8	1.9	1.7	14.6	13.3
두산밥캣	3,293.2	27.0	32,850	-0.8	-7.1	-3.7	-8.2	12.0	11.3	0.9	0.9	7.4	7.6
현대로템	1,317.5	25.4	15,500	-0.6	3.0	-18.4	-17.3	20.0	13.6	0.9	0.8	4.5	6.3
하이록코리아	322.0	48.1	23,650	-0.6	-7.3	6.0	5.1	10.7	9.8	0.9	0.8	8.8	9.0
성광밴드	347.5	16.3	12,150	3.0	-3.2	22.7	21.7	1,074.0	436	0.8	0.8	0.1	1.8
태광	348.5	15.8	13,150	2.3	-6.7	11.9	9.1	78.5	38.3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623.6	9.6	15,250	0.3	-0.3	-4.7	-0.7	12.6	9.4	0.5	0.5	4.3	5.3
두산인프라코어	1,935.7	14.0	9,300	-1.2	-11.4	5.7	7.0	8.0	6.9	0.9	0.8	12.0	12.3
두산엔진	406.2	3.1	5,830	2.6	42.0	45.8	58.2	-191.3	58.9	0.8	0.7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805.5	17.6	49,300	-1.0	0.9	3.6	3.9	35.0	24.2	3.7	3.4	10.6	13.9
한화테크윈	1,528.0	12.9	29,050	-0.5	2.5	-16.8	-18.3	22.9	14.7	0.7	0.6	2.9	4.3
LIG넥스원	1,029.6	11.0	46,800	-2.4	-6.2	-17.0	-21.7	18.4	13.2	1.6	1.5	8.9	11.5
태웅	404.1	3.5	20,200	2.5	-7.3	12.2	4.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5.3	4.9	8,350	3.3	-5.6	72.2	65.3	-347.9	494	24	24	-0.7	5.0
한국카본	298.1	16.1	6,780	0.9	-1.7	32.3	26.5	56.3	303	0.9	0.9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arossa proposal approved

미국 ConocoPhillips가 호주 북부에서 계획 중인 Barossa 프로젝트가 당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계획 등 추가 승인을 받아야만 개발이 시작 된다고 알려졌다. Barossa 프로젝트는 FPSO를 통해 연간 LNG 380만톤과 150만 배럴의 컨덴세이트를 생산할 계획임. 2023년 첫 생산이 예상되며, Barossa 프로젝트의 37.5%의 지분은 SK에너지가 소유함. (Upstream)

살아난 조선업, 자금흐름도 트인다

업계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인 KDB산업, 수출입, KEB하나, 우리 등 8개 은행은 올해 현대중공업 RG 한도를 30% 늘린 50억달러, 삼성중공업은 50% 이상 확대한 25억달러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전년도 기준 현대중공업은 RG한도가 31억 달러였으나, 연간 37억달러의 RG를 발급했다고 알려짐. (서울경제)

Magnolia LNG on hunt for investors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총 43억달러에 달하는 Magnolia LNG 프로젝트가 마지막 승인을 앞두고 곧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Australian LNG는 연간 8백 만톤 물량 중 2백만톤을 수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또 18년 말에 FID(최종투자결정)이 진행된다면 20년 하반기에 첫 LNG 수출이 예상됨. (Upstream)

관세폭탄에... 현대일렉트릭, 미국 공장 3000만달러 들여 증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변압기 생산법인인 앤리아메 공장에 3천만달러를 투자해 연말까지 증설한다고 알려짐. 현재 초고압 변압기를 연 80대를 생산할 수 있고 내년부터 62% 늘어난 130대를 생산할 계획임. 또 울산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2년간 1,700억원을 투입을 결정, 올해 말까지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현대일렉트릭은 2021년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함. (한국경제)

Hyundai Samho top dog among sister shipyards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1~2월중 9.37억달러를 수주하며, 전년동기 2.4억달러 대비 거의 4배 증가함. 이는 올해 수주목표 33억달러의 약 30% 수준에 달한다고 알려짐. 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VLCC 7척과 LNG선 1척을 수주했고, 수주잔고 509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임. (TradeWinds)

철강 보호무역 바람... 조선업계, 후판 가격 상승 부담 덜까?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16~17년 수출한 후판에 대해 11.64%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줄이고 이를 국내 조선업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만약 조선업계에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면 후판가격 인상에 차질이 생길 전망임. (매일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3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3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3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